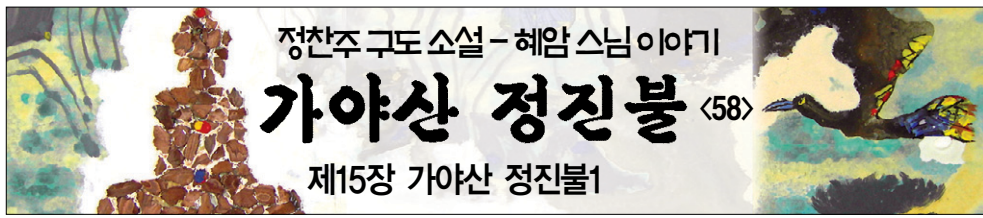


#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정간주 구도소설 - 해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58>**  
제15장 가야산 정진불1

중생의 모든 고통 씻은 듯이 사라지네.  
佛身普放大光明  
色相無邊極清淨  
如雲充滿一切土  
處處稱揚佛功德  
光相所照咸歡喜  
衆生有苦悉除滅

새벽이 되자 흰 눈이 나뭇나뭇 내렸다. 아직 잔잔하  
은 어둠이지만 공방 마당은 흰 광복을 펼쳐놓은 듯 하  
얇게 변해 있었다. 입춘이 며칠 지난 뒤였으므로 추위  
는 매섭지 않았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는  
중이었다. 공방 마당가에 옮겨 심은 매화나무 꽃망울  
은 며칠 전부터 동글동글 부풀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공방 나무난로에 불을 붙였다. 방으로  
들어가 잠을 더 잘 수 있지만 작업대 앞에 앉아 시  
간을 보냈다. 작업대 위에는 가을에 만든 달항아리가 한  
점 놓여 있었다. 장작가마에서 1350도의 고온을 견  
딘 순백색 달항아리였다. 화산의 용암처럼 액체 상태  
로 갔다가 고체가 된 달항아리는 도자기 수집가에게 거  
액을 제시받았지만 대연 거사는 돈으로 환산하고 싶  
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가 찾아와 감상하  
고는 미술관에 전시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한 작품이  
었다.  
물론 전혀 값등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공평한 개  
인사정을 개선하려면 당장 매매해야 했다. 그러나 작  
품을 돈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비참해지고 화가 났다.  
생계만을 위해 도예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었다. 그래도 현실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척추 통증으로 병원에 당  
장 입원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장좌불와를 아무  
렇게나 불규칙하게 해온 후유증 탓이었다. 의사는 그  
의 두개골이 목뼈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하고는 방  
치하면 전신마비가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나를 불구자로 만들지도 모르는 장좌불와를 계속  
해야만 할까.'

같았다.  
'이렇고.'  
처음 나타난 화두를 증언거리자, 더 강력한 메시지  
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렇고!'  
대연 거사는 벌떡 일어나 합장했다. 자신이 자신에  
게 묻고 있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대연 거사  
는 자신도 모르게 해인사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엎드  
렸다. 미소굴에 지금도 해암 스님이 계신 듯 삼배를  
하고는 중얼거렸다.  
'아, 나는 장좌불와 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장좌불와를 했구나. 장좌불와가 정진의 방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집착해 왔구나.'  
대연 거사는 해암 스님의 말씀을 그제야 깨달았다.  
당신께서는 정작 평생 장좌불와를 했지만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장좌불와는 달을 가리  
키는 손가락일 뿐, 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달항아리를 보자기에 썼다. 달항아리  
가 놓여 있어야 자리는 미소굴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  
상에 단 하나뿐인 달항아리지만 자신의 마음을 격동  
시킨 해암 스님을 생각한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지금 원당암으로 갈 것이다. 달마선  
원에 입실하여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렇고' 를 공구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장좌불와 하는 내가 누구인지  
를 찾을 것이다.'  
대연 거사는 달항아리를 오동나무 상자에 넣은 뒤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아침을 먹지 않은지 오래이  
므로 머뭇거리기 필요는 없었다.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화엄경> 비로자나품에서 대위광童子(大威光童  
子)가 두 번째 부처님이 된 바라밀선인장엄왕(婆羅密  
善眼莊嚴王)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이 일어  
나 설한 계승 중 일부였다. 법당 안에는 열댓 명의 신  
도들이 비로자나불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다. 대연  
거사도 법상에 해암 스님이 법문하고 계신 듯 절을 올  
렸다.  
신도들의 얼굴은 맑고 평온했다. 주련의 구절처럼  
비로자나불을 향해 절하는 모습이 더없이 고왔다. 어  
떤 신도는 절하는 동안 무언가를 확신한 듯 얼굴에 환  
희심이 넘쳤다. 고통이 사라진 듯한 표정을 짓는 신도  
도 있었다.  
대연 거사는 법당 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서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낮은 스님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거사님.'  
'아, 스님. 오랜 만입니다.'  
원당암에 갈 때마다 늘 미소로 맞이해주는 원각스  
님을 시봉하는 스님이었다. 체구가 작은 시자스님은  
마주친 노스님에게 먼저 합장한 뒤 대연 거사에게 말  
했다.  
'큰절에 일이 있어 왔어요. 원당암으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거사님도 올라가실 겁니까.'  
'예, 원당암에서 계속 머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달마선원에 들어가셔야죠.'  
'감원 스님께서도 잘 계십니까. 감원 스님께서 허  
락하시면 입실하려고 합니다.'  
대연 거사는 감원 스님의 안부부터 물었다.  
'지금 올라가시면 만나 볼 수 있을 겁니까.'  
주차장으로 간 대연 거사는 시자스님을 태우고 무  
생교를 지나 원당암으로 올라갔다. 그런 뒤, 대연 거  
사는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상자를 꺼냈다.  
'미소굴 단에 올려두고 가져온 달항아리입니다.'  
'거사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귀한 거니까 감원 스님이나 원주스님께 보여드리  
고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소굴에 어울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진영에 꽃다발을 올리는 분도 더러 있으니  
용도가 그만입니다.'  
시자스님이 말하는 용도란 현화한 꽃다발을 뜻한  
현화용 화병을 뜻했다. 꽃다발을 단에 놓아두면 곧 시  
들고 말겠지만, 물을 담은 달항아리에 꽂아두면 더 정  
성스러운 꽃공양이 될 터였다.  
마침, 열화실에서 나와 종무소로 들어가려던 원주  
스님이 대연 거사를 반갑게 맞았다. 해암 스님의 시자  
로서 입적 전후를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스님이었다.  
'미소굴로 바로 올라가시죠.'  
미소굴 안팎은 여전히 정갈했다. 비질 흔적이 또렷  
했다. '공부하다 죽어라' 고 쓰인 주장자 같은 큰 기둥  
도 변함없이 박혀 있고, 토굴 안에는 해암 스님의 사  
진과 유품이 몇 달 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저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연 거사는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었다. 원주 스  
님이 보자마자 감탄했다.  
'큰스님 마음처럼 넉넉하게 생긴 향아리입니다!  
'해암 스님을 모셨던 스님께서 좋아하니 다행입니  
다.'  
원주 스님이 단에 놓인 백합꽃 한 다발을 달항아리에



그림 · 최문정

##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렇고!’

## 대연 거사는 장좌불와에 대한 해암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을 찾기 위해 원당암 달마선원으로 발걸음

대연 거사는 가끔 회회해보지만 아직은 원당암에  
서 만난 그 노스님의 '장좌불와를 하면 도인이 된다'  
는 당부가 떠올라 그런 생각을 접곤 했다. 앉아 있기  
조차 고통스러우면 공방을 나와 산길을 무작정 걸으  
면서 척추 통증을 잊어버리곤 했다.  
대연 거사는 공방에 연기가 차 창문을 열었다. 연통  
에 걸렁이가 가득 찼는지 연기가 잘 빠져 나가지 않았  
다.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지만 견딜 만했다.  
찬바람 끝은 이미 불기운으로 무디어져 있었다.  
때마침 쟁쟁사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가 들려왔다.  
범종 소리가 창문을 넘어 공방 안 깊숙이 밀려와 공명  
했다. 여운이 공방의 공기를 떨게 했다. 종소리는 그  
의 머릿속도 행구었다. 복잡한 생각들로 얽혔던 머릿  
속이 갑자기 텅 비워졌다. 그런 머릿속은 깊은 심해처  
럼 고요했다.  
순간 대연 거사는 머릿속이 무엇이 하나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원당암 달마선원 기둥에서 보았던 화두  
였다. 화두는 어둔 바다를 환연히 밝히는 등대 불빛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해인사는 대연 거사가 사는 산중보다 더 따뜻하여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공방에서 3시  
간 만에 해인사 일주문 앞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승용  
차를 세워놓고 대적광전으로 갔다. 원당암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적광전은 해암 스님이 살아생전 해인사 방장 때  
나 조계종 총정이 됐을 때 대중들에게 상당법어를 내  
리던 법당이였다.  
대연 거사는 새삼스럽게 법당 기둥에 걸린 주련을  
읽었다.  
부처님 크신 광명 사방에 두루 하니  
온갖 만물 더 없이 맑고 곱네.  
오색구름 온 누리에 가득하듯  
곳곳마다 부처님 덕 기리는 소리일세.  
빛이 있는 곳에 넘치는 환하여

꽃이었다. 그러자 백합꽃 향기가 미소굴 안에 진동했다.  
'큰스님께서 꽃을 좋아하셨습니까.'  
'진즉 가져올 걸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대연 거사는 원주 스님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합장  
했다. 그러자 원주 스님이 점심공양을 걱정해주었다.  
'벌써 점심공양 때가 됐네요. 공양은 절에서 해야  
죠.'  
'달마선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  
한니까.'  
'아닙니다. 거사님께서 장좌불와까지 하고 계시  
지 않습니까. 다만 들고 있는 화두가 없다면 감원 스  
님께 타십시오.'  
'고맙습니다.'  
입실도 가능하고 화두도 하나 마련했으니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대연 거사는 해암 스님의 행  
자시절처럼 불같이 용맹정진하리라 다짐했다. 그  
때의 해암 스님처럼 일주일 안에 화두를 타파하지 못  
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신심으로 좌복을

지키고 싶었다.  
대연 거사는 원주 스님이 공간상으로 내려간 뒤에  
도 미소굴에 남았다. 불자(佛子)를 든 해암 스님이 사  
진 속에서 튀어나와 '잠선하다 죽어라' 고 사자후를  
토할 것만 같았다. 대연 거사는 미소굴 바닥에 앉아  
가부좌를 틀었다. 그러자 스님의 오도송이 고막을 찢  
을 듯 귀를 먹먹하게 했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수니  
해가 돌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  
迷則生滅心 悟來眞如性  
迷悟俱打了 日出乾坤明  
그때부터 대연 거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스로  
든 화두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렇고' 에 빠졌다.  
<계속>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제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감원 복산 원각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이녀 내듯하여  
연기가 나리라도 수지를 말지이다.  
불꽃이 나리라를 그려나 도에게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